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7월 31일~8월 4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 새벽기도회 설교 영상 상영
8월 2일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 '추모예배'

오는 8월 2일(화)은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 기다. 온누리교회는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리고 추모한다. 추모 기간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생전 설교 영상이 상영된다. <이사야> 44-45장 본문으로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6시, 양재온누리교회 1부 오전 5시 20분, 2부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새벽기도회를 한다. 설교 주제는 7월 31일(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일(화)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 2일(수) '회복을 다짐하시는 하나님', 3일(목) '하나님의 절대주권', 4일(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다.

8월 2일(수) 오전 11시에는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소규모 예배를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박정규 성가사, 블러썬 챔버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이 이어진다.故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계한다.

당회서기 홍성호 장로는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하면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그 아프신 와중에도 교회의 앞날을 고민하고 계획하시고, 늘 성도들을 격려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고백했다.

하용조 목사는 2011년 8월 2일 뇌출혈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향년 65세.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일본문



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시작,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했다. 저서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

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등이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7~8월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7월과 8월 우간다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

말라리아는 세계 3대 감염질환으로 감염자 95%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특히 우간다 팔로리나 남수단 난민정착촌은 나일강 습지와 인접해 말라리아에 노출되기 쉽다. 이 지역 보건소 외래환자 70%가 말라리아 환자이고, 입원 환자 90%가 중증 말라리아 환자다.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간다 팔로리나 남수단 난민정착촌에 모기장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은 모기장 배포와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etterworld.or.kr) 참고.

예수님과 함께 여름방학을!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여름캠프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의꿈아이 여름캠프가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이어졌고, 꿈이자라는땅 여름캠프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다. 꿈이자라는땅 여름캠프에서는 '부르신 예수님', '도우신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 퀴즈와 카드놀이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익투스'를 주제로 8월 초까지 진행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미리내 내설악,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동흥천교회, 충북 제천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고, 양재온누리교회는 강화 성산청소년수련원, 단양 청소년수련원, 도곡교육관은 숲속의 아침, 동흥천교회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일정에 맞춰 여름캠프를 한다.

'QT하고 빙수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편 'QT하고 빙수먹자' (이하 QT하고 빙수먹자)가 8월 19일(토)까지 이어진다. QT하고 빙수먹자는 차세대들이 방학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차세대 QT(예수님이랑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를 선물로 보내준다. '가족큐티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뜨겁게 달아오른다!

해외 158개 팀 1,700명, 국내 249개 팀 5,535명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58개 팀 1,700명, 국내 249개 팀 5,535명이 참가한다(7월 27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85개 팀 613명, 대학청년부 56개 팀 765명, 차세대 17개 팀 322명이 참가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레바논, 탄자니아, 필리핀, 캐나다 등 32개국으로 떠난다. 현지 교회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전도사역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성인공동체 119개 팀 2,837명, 대학청년부 119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참가한다. 농어촌교회, M센터, 기관 등을 찾아가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이주민 섬김 등을 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2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동영

상 공모전'을 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 2023)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1등 30만 원(1팀), 2등(20만 원 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 외식 상품권(배달앱)을 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관련 성도들의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A4용지 1장, 글자 크기 10포인트)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역 사진이,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문의: 각 공동체(국내), 02-3215-3211(해외) / 홍하영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반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 시킴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사탄과 인간 사이에 개입 하였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과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한 바로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바로, 즉시’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로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바로,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시켜 놓으신 것을 떼어놓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놓으신 모든 관계를 해체하고 분리시킨 죽음입니다. 이 분리와 해체로서의 죽음은 바로, 즉시 일어났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물리적 죽음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존재는 기계적으로 맞춘 게 아닙니다.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실타래를 풀듯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찢어지듯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죽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 자기 자신 안에 온전한 영혼으로 존재해야 하는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한 몸이어야 하는 부부, 가정,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는 죽음, 더 나아가 자연과 하나 됨이 깨어짐으로 가시와 영경위를 내고, 기후 환경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930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

창세기 4:1~15

충격적인 최초의 살인 사건

〈창세기〉4장에 충격적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4장에 나타난 사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죽음의 소식, 폭력과 살인에 대한 소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폭력적인 살인이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쟁과 수많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마약을 통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과거의 설화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간의 살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직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4장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인정하셨기에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분노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개를 떨군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고개를 든다’는 것은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과거에는 ‘종류가 문제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계시하셨는데, 가인이 따르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첫 새끼들과 양 떼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농산물이 아니라 아벨로부터 양을 얻거나 매입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속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종류를 구분해서 받으셨다고 한다면 소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의 일부

를 제사로 받으셨다면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 볼 때는 제물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마음의 태도 문제였다고 보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11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양 떼의 첫 새끼들과 양 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4절 a).

여기서 ‘기름’은 기름진 것, 최상의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종류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양 떼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마음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땅의 소산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소산물의 일부’인데 그것은 첫 열매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나왔지만, 가인은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소유 일부를 믿음도 없이, 감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여러 번의 태도가 누적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직후 그가 가진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고치는 게 올바른 태도인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자신이 옳다는 주장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위신과 외식, 불신앙과 불성실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은 드렸는데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문제라는 분노가 ‘고개를 떨구었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합당합니다.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소유 의식

가인이 어떻게 이러한 상태의 인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가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십자가로 제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내쫓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까? 중요한 힌트가 한 가지 나오는데, 이름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한 고백에서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들’은 ‘벤’, 즉 후손이어야 하는데 ‘이쉬’, 한 남자,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 “내가 아들, 딸을 얻었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얻었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a man’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담을 남자로 설명할 때 ‘이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여호와와 도우심으로”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관계의 표현인데, “내가 한 남자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자녀를 낳는 어머니의 감사의 고백이라기보다 그 아들을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교만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번역한 것을 “내가 한 사람을 얻었다”고 번역하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소유의식이 가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자기중심적이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인간이 된 근원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자녀에 대한 잘못된 시각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소유의식입니다.

아벨의 이름 뜻은 ‘헛되다’, ‘허무하다’입니다.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에 너무 도취되어 또 다른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는 무가치, 헛된 것으로 여겼다”고 해석합니다. 잘못된 집착과 편애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은 스타였고, 아벨은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아벨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인이 어떻게 형성되니까? 부모의 편애, 부모의 잘못된 소유의식이 가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존재

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할 때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는 이유 ‘불확실성’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6~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질문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은 돌이키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갔을 때 그를 노리고 있던 죄가 그를 사로잡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다른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무시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

가인의 살인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인 살인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반란, 반역, 배신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죽일 수 없기에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찾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들며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네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네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11~12절).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실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또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땅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다른 영혼을 해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기에 땅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수해와 산사태가 나기 전에 땅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땅도 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무고한 피가 뿌려진 땅이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무고한 피가 흘려진 그 땅이 사람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수많은 무고한 피가 흘려진 땅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식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 930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도 93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인을 해칠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가인 스스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해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가인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도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 혹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80%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실제 일어날 일을 염려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아벨을 무자비하게 죽인 가인이 자신의 생명은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한 억울함은 무시하면서 자신이 당한 작은 억울함은 매우 크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울바르지 않은 태도로 살면서 고난은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5절).

하나님이 왜 가인을 보호하셨을까요?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무엇입니까?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며 땅의 저주를 받으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인을 해치면 하나님의 징벌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권위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도 가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 살인, 질투, 시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가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창세기> 역사는 신화나 설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면 가인의 운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십자가로 제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내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믿음으로 내쫓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발달이상(간성)은 발달질환이다!

젠더활동가들이 남녀 양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간성(intersex)’을 자주 언급한다. 이들이 말하는 간성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간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용어로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공식 의학용어는 ‘성발달이상’ (disorder of sex development, DSD)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감수분열 과정 이상으로 생긴 발달 질환이다. 젠더주의자들은 이를 질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DSD를 성발달차이(difference of sex development)라고 부르면서 용어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DSD를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으나, 국제질병분류(ICD-10)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명백히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다.

성발달이상은 남성의 정자가 생성되는 과정 혹은 여성의 난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자나 난자가 생성된다. 그것들이 수정되어 태아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 초기 자연유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처럼 잘못 생성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까닭에 배아가 지속해서 발달하지 못하고 중지된다. 성발달이상은 모호한 성기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염색체 검사나 전장유전체 서열분석 등의 방법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성발달이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성염색체 숫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여성은 XX, 남성은 XY를 성염색체로 가진다. XO(터너증후군: 성염색체로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경우), XXY(클라인펠터증후군: X 염색체 2, Y 염색체 1 가진 경우), XXX(트리플 X증후군: X 염색체 3개 가진 경우), XYY(야콥증후군: X 염색체 1, Y 염색체 2 가진 경우) 등 성염색체인 X 혹은 Y 염색체의 수가 과잉 혹은 부족에 의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생식기 형태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식기의 형태는 오직 Y 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Y 염색체가 있

“젠더주의자들에 의해 간성이 악용되고 있는 동안
진정한 성발달이상 환자가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으면 남성, 없으면 여성이다. X 염색체의 수가 과잉될수록 지능의 저하가, Y 염색체 수가 과잉될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성염색체 숫자의 이상은 상염색체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을 때 다운증후군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이들 대부분 질환의 경우 성징은 명확하고, 생식능력이 상실된다. 결혼 이후 불임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불가능한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잘못된 성염색체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염색체와 반대되는 생식기 형태를 가진 경우이다. XY 성염색체를 가진 여성(스와이어증후군)과 XX 성염색체를 가진 남성(멜라사펠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남성으로 성별화를 결정하는 인자가 Y 염색체의 SRY(성결정부위)에 있어야 하는데 정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X와 Y 염색체 사이에 교차가 일어나 SRY가 X 염색체로 옮겨간 정자가 만들어진 경우다. 이 경우 SRY가 존재하는 X 염색체를 가진 경우에는 남성, SRY가 없는 Y 염색체를 가진 경우에는 여성생식기를 가진 아이로 발달한다. 두 경우 모두 X와 Y 염색체가 섞인 성염색체를 모든 체세포가 가지고 있기에 치료할 수 없고, 생식능력을 상실한다. 소아청소년과(유전학), 내분비내과, 정신과가 협진해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생식기의 형태는 명확하다.

셋째, 성호르몬이나 생식기 발달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 혹은 그 호르몬의 수용체에 발생한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이 있다. 성발달이상에서 가장 많은 0.1~0.2%에서 발병한다. 그중에서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자웅동체, 안드로겐무감응증후군, 5α-환원효소 부족증, 뮐러관유지증후군, 뮐러관 무형성증 등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형태가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부신과형성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호르몬 투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의 형태가 이상하거나 성장하면서 호르몬의 정상적 합성이나 작용이 차단되면서 성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본인이나 부모들이 너무 당황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게 좋다. 유전학적 검사를 면밀하게 받아볼 것을 권하고,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한 다음 의료 개입을 가장 단순화하는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젠더퀴어, 판젠더, 젠더뉴트럴 등 모호한 성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성발달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간성이라는 비과학적 용어에 의지해서 모호한 성정체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젠더주의자들에 의해 간성이 악용되고 있는 동안 진정한 성발달이상 환자가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기업과 사업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상준 장로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사람이 만든 조직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앞선 조직을 감히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업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으로 볼 때 군대, 정부, 종교 등 그 어느 조직보다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다. 끝없는 성장 목표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맞게 꾸준히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기업이 그렇지 못할 때는 시장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철저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 기업과 사업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거나 구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소비하는 글로벌 인류는 기업과 사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불경건하다고 치부하고 무시할 수 없다. 기업과 사업이 산업화하고, 글로벌한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으로 사업의 영향과 기업의 과오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사업에 직접 관여할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기독교적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동료, 즉 경영진과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존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기업 안에는 동료와 상사에 대한 불평과 비난, 뒷담화, 헐담, 근거 없는 소문이 일상이다. 그리스도인이자라면 그 분열의 자리를 혐오하고 멀리하고, 기업 내의 악자, 실망한 동료, 외톨이인 동료들에게 관심을 두고 격려해야 한다. 당신이 상사와 하급자 모두에게 사랑(나는 당신 편이라는 적극적 태도), 존엄(동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 존중(비판 대신 감사)으로 대할 때 동료들이 당신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의 문제점은 종종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데 지나치게 서로에게 관대하게 행동한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인 소명임을 고백하고, 사업과 기업에서 성경적 원리로 현실의 보며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업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기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기업에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근시안적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업 내 차별을 철저히 없애고, 정의로운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차별이든,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부 계층만의 불평등한 특권을 반대하고, 특정 계층 및 직업에 조건 없이 과다하게 주어지는 보상과 복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급여 인상 조건이나 승진 절차가 공정하지 않고,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특권이나 서열에 기초한 차등 보상은 사회 정의와 상호 존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합리적 인사제도의 공정한 운영이나 사업 결과 또는 개인 성과에 의한 차등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불평등이 아니다. 기독교적 정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정과 노력에 대해 차등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적 정의’다.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운 의사결정과 윤리적 충돌에 직면할 때가 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그때 의사결정을 신앙적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거의 관행을 큰 고민 없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때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혼탁한 사업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친절하게 행할 뿐 아니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사나 죽으나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오늘날 기업과 사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사랑과 정의가 둘 다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있을 때 기업 안에서 동료들과 화해, 협력, 참여를 이룰 수 있다. 또 기업에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많은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가정예배로 풍당!

가정예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가 ‘부모의 신앙’을 꼽았다. 발달 시기상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들에게는 부모의 신앙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 된다. 자녀들이 주일예배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예배 불참 사유 1위가 ‘가족여행’이었다. 아이들은 ‘가족여행 때는 주일예배 빠져도 되네’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 가족여행으로 주일예배에 빠졌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주일성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과제나 취업 준비, 동아리 활동 등을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간다.

가정예배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부담과 불편을 경험한다. 가정예배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예배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세 가지 오해를 풀고자 한다.

첫째,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정예배 드리세요”라고 권면하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주일 오전 드린 예배의 축소판을 집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표기도가 부담스럽고 설교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가장 힘든 것은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교회에서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 것이다. 자녀들의 예배 태도를 부모들이 지적하고 나무란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 형식을 갖추려다 무너지는 것이다.

가정예배는 부모가 원하는 경건한 행동을

자녀들이 하도록 교정시키는 시간이 아니다. 가정예배는 형식(frame)이 아니라 진심(plain)으로 하는 것이다. 가족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2천 년 교회사에서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시기가 청교도 시대다. 그때는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가정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가정예배를 그토록 강력하게 시행했던 청교도 시대에도 형식을 강조하지 않았다. 청교도 목회서신에서 가정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그럼 더 잘 드린 것입니다. 성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기도와 예배를 배운다.
부모의 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아버지,
기도하며 성숙하는 어머니를 보고 신앙을 배운다.”

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그럼 가정예배를 훨씬 더 잘 드린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몸을 비비곤 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 모습이 지금 자녀의 영적 상태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진지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부모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시 1:3).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미 신앙과 가정예배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 놓으셨다. 철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자녀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 온전하지 못한 예배 모습도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때에 자녀의 신앙이 탐스럽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 된다.

둘째, 가정예배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많은 부모가 “성경을 몰라서 가정예배를 못 드리겠어요”라고 말한다. 가정예배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 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 시간에 어린이용 성경을 함께 읽고, 그날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눈다. 가정예배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지?’ 생각하며 나누자.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분명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고, 부모와 자녀가 은혜의 감

격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셋째, 가정예배는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다. 가정예배를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로 여기는 부모가 많다. 가정예배가 숙제로 여겨지면 억지로 하는 가족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주 자녀의 예배 태도를 지적하게 되고,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기도와 예배를 배운다. 부모의 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아버지, 기도하며 성숙하는 어머니를 보고 신앙을 배운다.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정에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정예배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사용하자. 가정예배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 - 2편 가정예배에 대한 오답노트 다시쓰기’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그림 명난희

51.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7월 20, 26
일 본문 사도행전 13:8~12, 15:8~11

1.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보에 도착했어요. 그곳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어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었고, 하나님이 엘루마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행 13:8~12)

2.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유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였어요.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 (생략) ...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행 15:8~11).

차세대 QT 간증

하나님과 더욱 친해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큐티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큐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모든 순간을 겸손하게 인정해요’라는 제목으로 큐티했어요. 이 말씀에서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봤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것 같아 기뻐요. 앞으로도 큐티를 열심히 할 거예요.

친구들도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큐티 꼭 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송종현 학생
(서빙고 유년1부)

맛있는 말씀 해설

“...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 13:29~30)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어떻게 악이 공존할 수 있을까?”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문 중 하나다. 예수님은 곡식들 사이에 자라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 주셨다.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자기 밭에 악이라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알곡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라고 있는 가라지들을 보게 된다.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바로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이라 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라지를 심으러 다닌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고 하신다(마 13:25).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다. 에덴에서 첫 사람을 넘어뜨린 옛 뱀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 마틴 루터를 배출한 땅에서 히틀러도 성장했다. 참과 음

악을 사랑하는 아프리카에서 단지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120만 명을 학살하는 르완다의 참상도 있었다. 전쟁과 폭력, 크고 작은 차별과 갈등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 있다.

더 큰 두려움은 가라지가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도 못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한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가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를 마귀와 영적인 존재에게 미뤄 버리고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다. 악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삶의 밭과 복음의 알곡이 자라는 교회라는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다.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치고, 영적인 잠이 들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려고 틈을 보고 있다.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 가라지를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심판을 유보하는 시간일 뿐이다. 추수 때까지는 둘 다 공존할 것이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악한 사람도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뤄진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것이다. 가라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남겨 두신 것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도 가라지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열어 두셨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잠 16:4).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악인도 그 뜻을 이루

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주가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우고, 그 후에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거둬들이겠다고 하신다.

세상의 밭에 자라는 가라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자라는 가라지를 경계해야 한다. 장마철에 곰팡이가 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삶의 안방에 곰팡이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동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가라지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안 된다. 내 속에 말씀을 채워야 한다. 은혜에 늘 깨어 있어야 타작마당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도육한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주님이 함께하시며 도우신 유럽 선교

7월 31일~8월 6일
〈사도행전〉 16:19~19:10



전도자,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한 가정을 목상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지자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다. 때맞추어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진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던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관리들이 두려워하며 바울을 놓아 보낸다.

목상포인트 2: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텐(아테네), 고린도 등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가는 곳마다 순종하는 이들이 있

목상포인트 1: 참된 제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복음

가가 하면,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다. 주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다. 복음 전도자에게 큰 위로는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유럽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목상하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헬라인(그리스 사람)과 귀부인이 믿는다. 베뢰아 사람들은 더욱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쫓아와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이 아텐으로 떠난다. 우상의 도시 아텐에서 바울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다. 이후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로 간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환상 중에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친다.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하지만, 총독 갈리오의 도리어 유대인들을 쫓아낸다. 바울은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긴 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된다.

목상포인트 3: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선교는 계속된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에베소에서 2년 머물며 하나님 나라 복

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모두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바울의 열정적 헌신과 제자 삼는 사역을 목상하자.

▶바울은 이전에 복음 전한 곳을 다니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된다. 또 바울이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어떤 이는 불순종하며 복음을 비방한다. 이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며 복음을 전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감옥 속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는 그들뿐 아니라 간수 가족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 고난 중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기로 다짐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격려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이다. 나의 역할과 사명을 담담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아볼로는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며 양육했다. 내가 복음으로 가르칠 이는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서기까지 기도하며 섬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은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몇 년 동안 빚을 가지고 있었고,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지 못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며 부모님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종종 외할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최근 신장 투석을 시작해서 더는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신장 투석 중이신 외할머니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저의 비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비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성경에서 찾는 ‘하나님과 동행’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현실은 일에 쫓겨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속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쩌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와 유혹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롯이 서 있지 않음을 통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숨 가쁘게 살고 있다. 또 날로 경쟁이 심해져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신을 어필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오래 버틸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분주하게 만드는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최근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청년들이 예전과 달리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다. 게다가 눈빛이 흐릿해 보였다. 그래서 요즘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다. 하루 3시간 정도 유튜브를 본다고 대답했다. 하루 활동 시간에 대략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난 분량이다. 청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4~5년 전과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의 영적 눈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자연히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죄의 원리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

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답하실 뿐이다.

세상과 악한 영에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입술로만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있다. 에녹과 노아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신약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은 편을 택하라”고 권면하셨다. 여기서 좋은 편이 무엇일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분의 기쁘신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 더는 내 길에 서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틈을 노리는 악한 영이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 영생의 소망을 빼앗기 때문이다. 세상 풍파가 거세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으로 일어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김경수 멘토
(요셉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길은 내 길과 하나님의 길, 두 갈래다. 같은 길을 가려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발을 내딛고선 하나

심판을 예언했고,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열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족하니 마리아와 같이 좋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대화의 문을 여는 ‘노크’

누군가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다. 노크다. 노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의 바른 행동이다. 노크는 방안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방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다. 노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막혔던 문이 노크를 하면서 열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만일 노크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평온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충분한 배려 없이 무례하게 들어왔기에 방 안 공기가 따뜻할 수 없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 문은 닫혀 버린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긍정적인 흐름이 어려울 것이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겠는가?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은 부부의 마음 문을 여는 긍정적인 ‘노크’라고 할 수 있다. 불편하고 힘든 말하기 전에 긍정적인 말을 우선 하는 것은 부부의 마음을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서로의 존재와 섬김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말이면 더 좋다. 시작부터 묵혀왔던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 문이 닫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음 문이

닫힌 상황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없다. 자신의 말과 감정이 상대의 마음과 연결될 때 가장 수준 높은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주제를 먼저 꺼내면 마음 문이 닫히거나 비우호적인 상태에서 딱딱하고 건조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된다. 깊은 소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튕겨나가는 거절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부가 깊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노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생활에서 노크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가 있다면, 부부의 대화에서 감사와 칭찬은 존중과 배려가 포함되어있다.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된다. 싸우자고 덤비는 분위기가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따뜻함이 전달된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주제도 나눌 수 있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 혹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게 된다.

그런데 왜 부부가 서로에게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더 깊은 하나 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공유된 많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더 빛이 난다. 부부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보다 산전수전을

겪고, 위기를 지난 후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훨씬 깊다. 부부가 서로에게 깔끄러운 말을 일부러 하지 않고 묻어 둘 수도 있다. 회피함으로 현재의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도, 대화의 깊이도, 친밀감의 경험도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부부는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불편하고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도 회피하지 않고 담담히 주고받을 때 부부는 더 깊은 친밀감과 하나 됨을 경험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충분히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자주 있어야 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까운 관계에서는 보낸 시간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관계에 긴장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 좋은 일, 서로에게 감사한 일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도 생긴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관계일수록 더 많은 일들과 사건과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는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오는 불편한 이야기, 자신을 소홀히 대했던 배우자의 행동,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

는 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과 행동 등이 자신도 모르게 관계 속에서 쌓이게 된다. 그때 부부는 회피하지 말고, 가장 정제되고 온화한 가운데 대화해야 한다. “이 일로 마음이 힘들었어!”,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안 주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로 더욱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로 서로의 마음 문을 노크하는 것이다. 부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당연히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 서로의 섬김과 사랑도 쌓인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헌신과 섬김의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투덜거릴 수도 있다. 인간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처는 칼날같이 기억하지만 감사와 섬김 받았던 고마운 기억은 연기처럼 쉽게 마음에서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 서로에게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일들을 먼저 꺼내놓으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시 9:1).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강동 동서울A공동체
보령 원산도교회

하나님 사랑 전하고, 희망과 위로 전하고

지난해 여름, 원산도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여름이라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해 여름 아웃리치도 원산도교회로 향했다. 믿음의 봉사는 이런 것인가? 올해도 하나님은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 A공동체 식구들이 사랑으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령 원산도교회 성도님들께 만족스러운 섬김을 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 귀한 섬김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안 믿는 자들을 이웃으로 청하고, 믿음의 봉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고자 했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다.

“원산도 아웃리치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구원의 은혜가 원산도에 임하소서!”
강동 동서울A공동체 아웃리치팀은 총 49명이었다. 환경개선팀, 예배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새가족 잔치팀(식사팀), 차세대사역팀, 미용팀이 각자 맡은 사역을 했다. 팀원들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다. 교회 환경개선팀은 교회 환경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회 출입구에 나무 심는 봉사를 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강동 동서울A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원산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에 더욱 기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예배팀은 원산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과 연대를 이루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도사역팀은 원산도 교회 주변 주민들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미용팀에서 봉사했다. 파마와 헤어컷, 염색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도들의 외모와 자존감을 돌봤다. 또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대접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속적인 섬김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연세가 많아서 교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만들어 대접했다.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했다.

차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창조주 하나님 강의, 미술 원데이 수업과 활동을 했다. 중학생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 질서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회에 처음 온 학생도 있었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창조의 선언과 그 과정을 설명했다. 미술 원데이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차세대의 능력이 캔버스에 아름답게 그려지도록, 차세대들의 예술적 재능이 성장하도록 도왔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원산도 아웃리치를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무한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줄 믿는다(롬 10:10).

박은하 성도
(강동온누리교회)관악금천공동체 사랑다락방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

관악금천공동체 사랑다락방의 올해 아웃리치는 더욱 특별했다. 1다락방1사역으로 이어지는 아웃리치였기 때문이다. 은혜와 감동,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이보다 큰 기쁨이 없었다.

사랑다락방의 올해 여름 아웃리치 장소는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이었다.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 카페는 사랑다락방 책임선교사인 이경원 선교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곳이다. “비즈니스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헤브론 카페를 통해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정말 많은 기도 용사가 모였다. 다락방 순장님, 장로님과 함께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아웃리치를 계획했다. 그리고 다락방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날마다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다.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 카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민과 유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날마다 이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웃리치 답사팀이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 카페를 방문했다. 필요를 살피고, 고민



관악금천공동체 사랑다락방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다.

하고 기도하면서 아웃리치 섬김 내용을 정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일일 바리스타 무료 강습회를 열기로 했다.

공활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웃리치 당일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기상예보가 빗나가게 하셨다. 나그네를 찾아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시원한 날씨를 주셨다.

우리는 행사에 초대할 나그네를 찾기 위해 다문화거리를 누볐다. 2~3명이 여섯 개 조로

나뉘어 초대 손님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그네를 찾아 다녔다. 다문화거리를 누비면서 인도네시아 젊은 나그네 한 분 한 분에게 초대장을 건넸다. 우리 조에서 7명에게 초대장을 전했는데, 행사 장

소로 바로 초대하기에는 그들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았다. 다행히 다른 두 조에서 나그네 다섯 명을 데려왔다. 모두 함께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민 다섯 명과 함께 일일 바리스타 강습회와 과일차 만들기 등을 했다. 바리스타 강연과 과일차 만들기 강습을 하면서 이주민들과 사랑다락방 식구들이 한 가족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수고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린다.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 섬김은 지난해 아웃리치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헌신과 애환을 더 깊이 공유할 수 있었다. 또 사랑다락방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앞으로 안산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한다.

박종순 집사
(관악금천공동체)

선교 열매 맺히는 나무되기를...

영등포구로공동체
국내,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등포구로공동체는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현장을 지켜온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올해 아웃리치 테마를 ‘선교사 힐링’으로 정하고 준비했다.

국내 아웃리치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내에서 M미션 중인 구자현 선교사님 가족,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신학 공부 중인 김지훈 선교사님 가족, 비자 문제로 일시 귀국한 1국 이 선교사님을 강화도의 한 호텔로 초대했다. 부모님을 사역에 뺏겼던 MK(선교사 자녀)들이 온 가족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누렸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늦은 밤까지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중보기도하며 하나 됨을 경험했다. 그 이튿날에는 강화도 테마파크에서 루지와 체험형 미디어아트인 ‘빛의 놀이터’를 통해서 힐링 시간을 가졌다.

7월 7일부터는 필리핀팀과 말레이시아팀이 동시에 해외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정광훈 선교사님은 20여 년 전 필리핀 마닐라의 가장 열악한 빈민촌 자택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다. 지금은 1교회부터 5교회까지 교회 다섯 개를 건축하셨다. 현지인 700여 명을 목양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났다.

필리핀 아웃리치팀은 길거리와 판자촌 마을을 돌면서 전도했다. 노방전도를 하고 각 교회로 돌아와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공동체



영등포구로공동체 성도들이 말레이시아 선교사 부부를 축복했다.

찬양과 기도가 정말 뜨거웠다. 특히 타갈로그어로 찬양할 때 아웃리치 팀원들과 현지 성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다. 총 1톤의 쌀과 의류, 학용품, 교회 에어컨, 음향 장비, 컴퓨터 등을 선물하고 격려했다. 월요일부터는 ‘Sea Spring’이라는 해수온천 휴양지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광훈 선교사님은 “지난 20년 사역은 한마디로 은혜와 감사뿐이고, 아웃리치팀의 방문은 터보엔진

을 하나 더 다는 것 같다”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말레이시아 아웃리치팀은 쿠알라룸푸르 따만미타교회 담임목사이자 신학교 교수로 섬기는 이철우, 김문경 선교사님을 방문했다. 이철우 선교사님은 지난해 말 파송교회에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에 아웃리치팀의 방문 소식을 듣고 “협력 교회가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

저녁 교제 시간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따만미타교회의 상황과 사역의 어려움을 들었다. 남명현 장로님께 모리스 선교사의 헌신적 사역 일대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두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토요일 광동어예배, 일요일 영어, 만다린어 예배에서는 따만미타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 손종열 선교사님이 라오스 사역을 간증하셨다. 박경숙 집사님은 온누리교회 순환동 소개, 영어 찬양 특순 등으로 섬겼다. 특히 올해 10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수건 400장을 기증할 거라는 소식에 따만미타교회 리더십들이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국내와 해외 두 곳에서 진행된 아웃리치는 영등포구로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였다. 아웃리치팀은 출발 2개월 전부터 기도와 특순을 준비했고, 아웃리치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셨다. 공동체와 선교사들이 주

안에서 참된 하나 됨을 느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로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공동체로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더 잘 섬길 것을 다짐한다.

도전복 집사
(영등포구로공동체)

서대문공동체

제주Act29 훈련센터, 안디옥교회

서대문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제주Act29 훈련센터와 안디옥교회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온누리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한 오성, 홍명희 선교사님이 제주Act29 훈련센터에 계시면서 중국 교회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어 안디옥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안디옥교회는 제주에 있는 중국인 교회다. 제주도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들이 낯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안디옥교회 목사님은 중국 삼자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정치 교회의 참혹함과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한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제주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중국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잠깐씩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신다”는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칠고, 치열하게 살다가 평온한 천국에 올라가면 문화적, 정서적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번 아웃리치가 내게 천국 생활에 대한 체

그곳에서 천국을 체험했다!



서대문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중국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험학습 기회를 줬다. 아웃리치를 마친 뒤에도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뜨거운 여운이 남아있었다. 단순한 여행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천국 식당에는 긴 수저만 준비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 주는 배품이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던가. 서대문공동체 식구들이 한결같이 만지를 온몸에 뒤집어쓰고, 방진복 속에서 땀범벅이 되고, 머리에 페인트가 튀고, 염색약 냄새가 진동할 때도 기쁘게 웃으면서 즐거워했다. 아웃리치

팀원 모두가 환해진 교회를 보고 놀라고 기뻐할 중국인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안디옥교회 페인트 작업은 애초 계획을 초과해서 천장까지 했다. 늦게까지 작업이 이어져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다.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어디선가 예정에 없던 부엌과 현관에도 페인트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만이 나올 만도 한데 곧바로 부엌과 현관으로 달려가 작업하는 집사님들을 보았

다. 일을 모두 끝마치고 이동하는 길에 부엌과 현관까지 페인트 작업한 게 정말 ভাল 것 같다고, 중국인 성도들이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습은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가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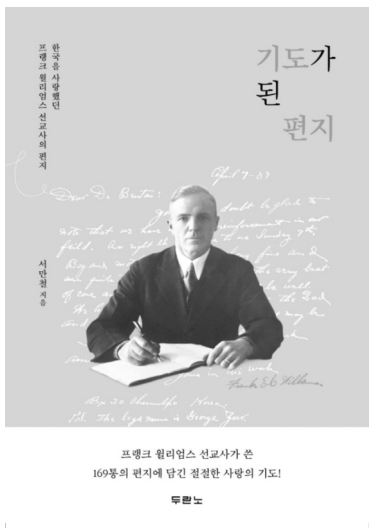
받은 은혜가 이뿐만이 아니다. 아웃리치 현장에 도착해서 이성, 홍명희 선교사님, 김요성 목사님 이끄시는 첫 예배에서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 또 안디옥교회 중국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성령 충만을 느꼈다. 정말 맛있었던 음식과 첫날 드림교회에서의 웅기장이 콘서트는 하나님은 은혜에 담으로 주신 행복이었다. 아침 식사는 모두 함께 준비했다. 공동체 식구들이 맛있게 먹도록 정성을 다했다.

천국에서처럼 긴 수저로 음식을 떠먹여 주신 서대문공동체 식구들께 감사하다. 짧은 아웃리치 기간이었지만 천국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았다. 우리의 헌신이 중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병철 다락방장
(서대문공동체)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책'

한국을 사랑했던 한 선교사의 편지



〈기도가 된 편지〉
서만철 저 | 두란노 | 12,000원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신 납골당에 다녀왔다. 어느덧 십 년, 갑작스레 닥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짜릿하게 남아 있다. 어머니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분이셨다.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하러 나가셨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던 분이 마침내 그분을 찾아 떠나셨다. 마치 예복처럼 그렇게 홀연히.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그다음 해 둘째 딸이 태어났다. 어머니가 보내온 선물 같았다. 당신의 부재를 이 아이를 통해 채우라는 진한

모정 같았다. 그렇게 어머니의 자리를 딸로 채워온 지 십 년, 재계약을 위해 찾은 납골당 유리 칸에서 언젠가 딸아이가 써놓았던 편지를 보게 되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짝 짝 그림을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에게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쓴 글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빠를 통해 딸아이는 자신만의 할머니를 기억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기도가 된 편지〉는 역사 속에 잊힌 한 선교사가 남긴 169통의 편지를 재조명한 글이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스’ (Frank E. C. Williams, 한국명 우리암(禹利岩))이다. 그는 1883년 미국 콜로라도 주 뉴원저에서 태어나 1906년 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23세에 불모지의 땅 한국에 파송되었다. 34년 동안 감리교 충청 지역 선교 책임자 및 공주 영명학교 교장(초대, 2대)을 지냈다. 민족 교육 말살 정책을 펼치는 일제 치하에서 한국의 자주 독립과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교육만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제대로 된 교육 시설이 없는 충청 지역에 공주 영명학교를 세웠고,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훗날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삼고자 했다. 충청 지역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은 그가 세운 공주 영명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도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다. 그곳에서도 광복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영국군과 함께 대일 항전을 전개하는 등 통역관으로서 큰 활약을 펼쳤다. 광복 이후 그는 아들 우광복(George Z. Williams)과 함께 미군정청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교육과 농업 발전 및 정부 수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광복은 미해군 군의관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 당시 미군정청을 책임지고 있던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사령관의 통역관 겸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돼 정부수립을 위한 한국인 50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 가운데 4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를 통해 남한에서 기독교가 실권을 얻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책의 저자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은 재임 시절 등산길에서 마주한 오래된 선교사들의 묘지를 보면서 100여 년 전 이 땅을 찾은 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까지 바친 선교사들의 숭고한 삶과 사역이야말로 이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선교 유산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현재 그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

코(UNESCO) 세계유산 등재’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를 조직해 몇 안 남은 기독교 선교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격동의 시기에 이 나라의 교육과 자주 독립을 위해 애써온 한 선교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남긴 169통의 편지는 흑암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애환과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호소로 물들어 있다. 동시에 감사를 잊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쁨도 함께 녹아 있다. 한 통의 편지로 오갔던 그의 글들을 이제 와 다시 살펴보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삶을 살다 간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도가 이뤄낸 오늘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편지가 아닐까. 울여름 그동안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던 아웃리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움츠렸던 영적 기개를 다시 펴고자 하는 한국 교회의 움직임이 귀하고 값지다. 그들의 마음에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불꽃 같은 열정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 기도가 주께 보내는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소망한다.

/ 조태준 팀장(두란노 출판 2부)

두란노 신간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출근하는 작은 예수〉
방선기 저 | 두란노 | 20,000원

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와 일’,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등을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돕는다.

세속의 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출근하는 작은 예수〉는 일터에서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여,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방선기 목사의 저서 〈출근하는 작은 예수〉에 적힌 글이다. 〈출근하는 작은 예수〉는 일터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책이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방선오 교수(명지전문대) 등이 이 책을 적극 추천했다.

〈출근하는 작은 예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

벅차오르는 그 이름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아가파오 워십 편곡

님만 불라도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깊이 감사하고,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는 ‘아가파오 워십’이 편곡했다. 워십 리더 김종길, 보컬 김은희, 드럼 이상민, 건반 김혜정 등이 참여했다. 아가파오는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소속 선교단체다.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The Blessing 축복’, ‘주님을 맞이하며’ 등의 앨범이 있다.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실천 ‘냉난방’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에 더해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 향상으로 냉난방 기기 보급률과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냉·난방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할 때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냉·난방기 청소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실천 방안

- 1) 에어컨 사용 1시간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14.1kg
- 2) 에어컨 냉방온도 2℃ 높이기
CO₂ 저감량(연간): 5.3kg
- 3) 주기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
CO₂ 저감량(연간): 1.2kg
- 4) 보일러 사용 1시간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138.3kg
- 5) 보일러 난방온도 2℃ 낮추기
CO₂ 저감량(연간): 71.4kg
- 6) 단열재로 열손실 방지하기
CO₂ 저감량(연간): 71.4kg
- 7) 주기적으로 보일러 내부 청소하기
CO₂ 저감량(연간): 55.3kg,

NLS 시리아 난민교회 맞춤전도집회

전도사역본부와 'SWIM'의 연합사역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SWIM(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이 연합해 지난 7월 15일(토) 튀르키예 이스탄불 NLS 시리아 난민교회(이하 NLS 난민교회)에서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난민 95명, NLS 난민교회 스테프 37명, 전도사역본부 및 SWIM 스테

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는 시리아 탈출 난민 간증, 샌드애니메이션 영상 상영, 이용만 장로 간증, 아르만즈 목사 설교 등이 이어졌다.

아르만즈 목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면서 난민들을 위로했다.

권기현 총무(세계인터넷선교협의 회)는 “난민들을 위한 전도집회를 지원해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면서 “난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쟁의 상처와 지진 피해를 딛고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othing is impossible’(불가능은 없다)

8월 화요성령집회 화 19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8월 화요성령집회가 ‘Nothing is impossible’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8월 화요성령집회 ‘Nothing is impossible’에서는 1일 최성민 목

사 ‘한계를 이겨내는 기도’, 8일 이우람 목사 ‘대적을 제압하는 찬양’, 15일 최성민 목사 ‘미움을 극복하는 사랑’, 22일 이서진 목사 ‘성벽을 돌파하는 순종’, 29일 최성민 목사 ‘불신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25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수강신청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255기 결혼예비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6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에서 열린다.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손철우 교수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황규복, 김숙경 부부 ‘너와 나, 다름의 축복’,

김의수 센터장 ‘신혼, 재정의 첫걸음’, 이범석, 이연숙 부부 ‘하나님의 비밀, 성’, 김숙경 소장 ‘건강한 자아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두란노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30만 원(2인 기준). 문의: 02-2078-3263

7월 세례자

■서빙고

강민성 870415
강상훈 740606
김려원 940617
김동희 920406
김효선 770810
이성주 070226
이수정 700923
조동현 840108

박예은 220816
박준섭 정선화
박하엘 220711
박현우 차명희
박호담 210315
박재우 김정은
백하윤 210923
백현준 한지혜
선주환 230226
선민기 황인영
이예나 211221
이현준 김지수
이준수 221007

이중도 박효주

■양재

유아

김나연 220418
김명신 박정미
김지유 210202
김민우 이혜림
박소현 211208
박민제 김영은
소하준 220531
소준길 문효진
오 윤 210212
오주현 이기쁨

이루나 211009
이반석 서주는
이정옥 221014
이윤재 임민아
이하람 220915
이동녕 진서경
이하은 230526
이강석 오지영
이하임 230526
이강석 오지영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8월 6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이 오는 8월 6일(일) 오후 2시 안산 온누리M센터(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열린다. 이번 연합세례식에서는 한국, 몽골,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 7개국 유아 3명, 아동 4명, 성인 20명이 세례를 받는다. 유아세례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본부장), 전홍렬 목사가, 성인 세례는 예배 담당자 및 온누리M센터장(전홍렬, 최명현, 손순동, 서영찬 선교사)이 집례한다.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은 매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거행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ECD 유치원 졸업식

60명 졸업, 문맹률 높은 지역 영유아 교육 책임

NGO 더멋진세상이 운영하는 ‘ECD 유치원’ 졸업식이 지난 7월 12일(수) 있었다. 올해 졸업하는 ECD 유치원생은 60명이다.

ECD 유치원은 문맹률이 높은 르완다 응호망과마을과 가혼도마을 영유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졸업생 아리에프(만 5세)는 “

ECD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세계 곳곳을 누비는 ‘파일럿’을 꿈꾸게 됐다”고 고백했고, 세드릭(만 5세)은 “ECD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말하면 엄마가 크게 안아주시고 큰 빵을 주실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대상이다. 타 교회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첫째

주 일요일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에서 한다. 지휘는 최영은 성가사가 한다.

문의: 010-8285-6435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새사람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대일제자양육(양육 3회 이상 수료), 중보기도, 문서전도, 찬양팀, 악기연주 등이다. 온누리교회 등록성도로 주중사역

이 가능한 성도가 그 대상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출소 이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돕는 사역을 한다. 문의: 010-3242-8743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수강생 모집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온라인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의 방향성과 핵심’, ‘남녀 창조 질서 이해하기’ 등을 주제로 김지연 교수가 강의한다.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교사, 학부모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8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1

■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간증



/ 이지현 성도(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 초대와 별친
그리고 믿음의 세르파

열린새신자예배는 ‘특별한 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다. 특별한초대에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첫발을 댄 이들의 귀함을 강조해서 ‘별친’(각별한 친구의 줄임말)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다. 애칭으로 부를 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다. 진정한 모토는 따로 있다. ‘초대자를 기쁘게’다. 별친(전도대상자)과 함께 예배에 방문한 초대자(전도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자는 뜻을 담았다.

지난해 소중환 사람을 전도했다. 같이 교회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는(이하 별친) 처음 접하는 교회와 예배를 힘들어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이었는데 그 기도가 특별한초대에배에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구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처음 방문한 우리에게 예배 스태프가 찾아왔다. 한주도 빠짐없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예배 뒤에 안부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들은 초대자인 나의 고민과 걱정을 이해하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줬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별친의 교회 적응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을 줬다. 비신자였던 별친이 신앙인이 되기가

지 그들이 나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기뻐해줬다.

네팔에 ‘히말라야의 안내자’로 불리는 세르파(Sherpa)가 있다. 탁월한 안내자인 세르파와 함께하면 목표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할 확률이 높다. 특별한초대에배가 우리에게 세르파가 되어주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르파들의 섬김으로 나의 별친이 신앙인으로 향하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특별한초대에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 전도하면서 초대자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계기로 나를 스태프로 세우신 것은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였음을 매주 깨닫는다. 곧 특별한초대에배의 새로운 스태프를 모집한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일지 모른다. 기쁘게 초대장을 받고 믿음의 세르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문의: 02-3215-3177

■ 유아세례 간증



/ 유아: 김태이, 부: 김기철, 모: 이연주

오직 여호와와 뜻으로만!

서른아홉, 느지막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신혼생활을 갖고자 아이 갖는 일을 조금 미루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 2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했다. 아기를 위한 기도도,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보다 당황스러운 마음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아내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 갔는데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다. 모든 게 우리의 교만 때문인 것 같았다.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죄스러운 마음에 여러 날을 슬픔 속에서 지냈다.

그 이후 정말 감사하게 다시 아이를 가졌다.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렸다. 하나님은 2018년 태은이, 2019년 태린이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2022년 1월 막내 태이가 태어났다.

사실 첫째, 둘째 딸을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정신없고 지쳐서 아이들의 어릴 때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지난해 태이가 태어나면서 아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경험하

고 있다. 육아를 다시 하는 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태이가 행복하게 웃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

지난 5월, 태이가 의자에서 떨어져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은 적이 있다. 잠깐 아이를 돌보지 못한 순간에 떨어져서 머리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도가 계속 나왔다.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자녀 태이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다행히 머리 안에 출혈 흔적이 없었고, 건강하게 회복돼서 밝게 웃으며 성장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갖는 일도, 낳는 일도, 키우는 일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와 뜻으로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계획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날마다 지혜를 구할 것이다.

■ 전도콜센터 간증



/ 이연옥 집사(김포공동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연로해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더욱 커져만 갔다. <온누리신문>에서 ‘전도콜센터’라는 사역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전화번호를 메모해 뒀다.

올해 4월, 아버지가 식사도 못 하시고 몸에 열이 났다.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이었다. 폐렴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경과가 좋지 않았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 며칠 뒤 언니가 울면서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전화했다. 아버지의 구원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 일단 급하게 교회에서 가져온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사진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내줬다. 그것으로 전도를 해보려 했다. 얼마 뒤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버지는 퇴원하셨지만 연로하신 탓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 어머니도 매우 편찮으셨다. 부모님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콜센터에 전도 요청을 하고 기도로 준비했다. 그런데 하필 장마가 시작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험할 것 같아 전도콜센터 권사님께 “다음으로 미루는 게 낫겠다”고 연락드렸다. 그런데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든 가자”고 말씀하셨다. 권사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길을 열어주셨다. 신기하게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다른 권사님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강원도 산골까지 무사히 다녀왔다.

시골집에 도착해서 권사님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부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 포옹이 부모님의 마음 문을 열었다. 마음 문이 열리자 부모님께 서 전도지 <최고의 행복>과 영접 기도문을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따라 읽으셨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주위에 구원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도콜센터 문을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문의: 02-2215-3377(전도콜센터)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이규환 순장(양천공동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순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순장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족함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순장학교에서 순장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를 새삼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순장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순장으로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점검했다. 순장 역할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동안 내가 보인 모습은 교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쳤던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순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다시 한번 순예배와 순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순장이 되기로 다짐했다.

이번 순장학교에서는 강의에서만 배움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순장학교 모든 과정에서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 같은 조 순장님들과 테이블 리더님들의 나눔과 헌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특히 아웃리치에서 함께 봉사하고 예배드릴 때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아올랐다. 아웃리치에서 주고 온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아온 것 같아 감사했다.

순장학교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순장학교에서 소중한 배움과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순원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순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순장, 성령 충만한 순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박공 장로
(신용산공동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제자도 때문이다. 제자들의 영성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흘러갔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하다.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미래 한국 교회가 살길이다.”

이기훈 목사님이 쓰신 〈왜 일대일 제자양육인가〉라는 책 서문에 쓰인 말이다. 오늘날 국가와 사회, 교회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기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가정과 일터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흠어진 교회로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네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직장선교를 하면서 역사상 최대 인력 부족, 경영난 지속, 정세(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송 사태), 노사관계의 불협화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웠고, 영적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많았다. 사용자든 근로자든 위치를 떠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현장을 이겨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제자도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게 되었다. 하나님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훈련에 온전히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로 했다. 스스로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훈련하고 있다. 책 내용을 정리하고, 주 1회 복습하며, 배운 내용을 수시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더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훈련의 결과인지 요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틀이 잡혀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직장 선교에 대한 사명도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보자.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방법을 잘 배울 기회가 또 없다. 모두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기를 축복한다.

권사칼럼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이명화 권사
(수원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나에게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첫 번째 40일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거짓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나에게 나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며 날마다 회개했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날 즈음부터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의 영이 나를 평생 사로잡고 있다가 나간 게 분명했다. 학교에서 맡은 업무도, 자동차 운전도, 대인관계도 모두 새로워졌다. 일상이 정말 감사했고, 날아갈 듯 기뻐다. 온누리교회는 나를 거듭나게 해준 참 좋은 교회다.

요즘 나의 삶이 참 보람 있고 행복하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오성연 장로님과 나섬교회 유해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한국어를 통한 이주민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해주셨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교역에서 명예퇴직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늙기 전에 주의 일을 해야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덜 죄송할 것 같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신우회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냐 함께 해주셔서 수원비전센터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다.

2022년 1월 20일, 수원비전센터 개원예배를 드렸다. 비전스쿨을 수료한 회원 20여 명과 함께 시작했다. 월 2만 원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빠듯했지만 일단 시작했더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의료선교팀, 여성사역팀, 성도

님들의 후원이 물밀 듯 쏟아져서 기적이 계속되었다. 많은 분이 이모저모로 계속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수원비전센터를 개원했을 때 학생 모집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남편의 타고난 성격 덕분에 전혀 모르는 이주민 식당 사장님들과 금세 친해져서 센터가 소문이 나고,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지금은 학생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학생들의 SNS 홍보를 통해서도 찾아온다. 어느새 학생만 50명이 훨씬 넘었다.

수원비전센터는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대신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 소풍도 가고, 음식도 나눠 먹었다. 박정미 선생님(조동욱 목사님 사모님)은 명절에 이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하셨다. 사랑이 무르익어 가던 지난해 성탄절에는 복음을 전했다. 학생들이 영접기도를 했다. 기적이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업 때마다 찬양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안 나오는 학생들이 생겼다. 우리가 성급하게 서둘렀나 싶어서 찬양과 기도를 잠깐 쉬었다. 다시 결심하고 올해 1월부터 매주 주일 2시부터 30분 동안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전후 수업을 만들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수업과 예배를 연결했다. 처음 예배 인원이 10명이 됐을 때 뭘 듯이 기뻐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고 있다. 3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이주민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감격하고 있다.

수원비전센터 학생들이 탈락자 없이 예배에 동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훗날 역과송 선교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과 이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신앙에세이



정연상 전도사
(서빙고 파워웨이브)

언젠가 라디오에서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연구 활동에 매진했다고 알려진 에디슨의 말이다. 그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음을 언급한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뜻한 바를 이루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인지 혹은 엉뚱한 곳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2013년 개봉한 영화 ‘어바웃 타임’은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놀라운 말을 듣는다. 그 가문의 남자들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내 삶을 돌이키려고 그 능력을 사용한다. 그는 과거 게으르고 연약한 때로 돌아가 삶을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학교 근처 빵집과 카페, 편의점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손에는 〈새벽나라〉를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7UP’에 참여한 청소년들이다. 그들은 아침잠을 줄이고 집에서 일찍 나와 말씀을 묵상했다. 그들 곁에는 바쁜 출근 시간 짬을 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선생님이 함께 계셨다. 저마다 중요한 아침 시간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7UP에 참여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했다. “7UP을 통해 180°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30° 정도는 달라졌다고 확신한다. 몇 번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될 수는 없지만, 아침 시간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나는 30° 정도 기독교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발을 내딛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잠이나 더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아침에 나를 깨우셔서 ‘7UP 해야지’라고 속삭이셨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매주 우리를 기다리시는 소그룹 선생님과 함께하시며 아침 시간을 구별하도록 인도하셨다. 7UP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다. 소그룹 선생님은 ‘내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저마다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을 때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언젠가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나가야 신(神)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이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을 구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바쁜 출근 시간 운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시간을 구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침잠이 소중하다. 그런데도 지난 몇 달 7UP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아침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과연 나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바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애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선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6-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영상·유튜브팀 간사 채용 공고
모집 : 영상(촬영, 편집) 0명 / 신인
자격: 세례교인, Premiere Pro, After Effects, Final Cut Pro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능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성품이 온유한 자, 해외여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우대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문의: 서빙고 영상·유튜브팀(02-3215-3752, 3787)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 169기 모집
일시: 7월 29일~8월 26일 매주 토 오후 2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신청: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father.or.kr)나 아이스쿨 홈페이지
회비: 12만 원
문의: 010-2657-187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
모집: 후원담당자 1명
업무: 후원자 상담 및 후원 관리, 핵심 후원자 대상 후원 경험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실행
문의: 문주영(070-4402-3023)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 참고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0 분당 / 3부 14:10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6:00 분당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 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 더욱 현장감 넘치는 신약 강의!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신약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업로드

유튜브 CGN 채널 검색



풍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